



나누는  
희망을 지피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2. 4호

## 하느님의 꿈, 나의 꿈

오쿠다 치카 세실리아.FMM

저는 일본에서 온 오쿠다 치카 세실리아입니다. 2018년, 종신 서원을 할 때 한국 관구로 파견을 받고 일본에서 한국어를 조금 배우다가 2020년 2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동 대지진과 위안부에 대해 배웠을 때 큰 충격을 받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일본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한국에 가서 한국 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서울로 여행 왔을 때 명동 대성당에 가서 "하느님,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한국에서 한국 분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20년 후에 제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는 길을 열어 주시며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 주셨고 제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첫해에는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저희 창립 어머니이신 마리



드 라 빠시옹께서 1898년, 일본에 수녀원을 설립하도록 5명의 수녀들을 파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파견된 그 자매들은 놀랍게도 한 달 후에는 일본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찾아온 이웃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 일본말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도 창립 어머니의 말씀과 선배들의 모범에 따라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만, 당연히 한 달 만에 그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래도 학교에 가는 길에 만나는 복지관 직원들, 버스 기사님들, 유치원 어린이들과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직원들께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로서 한국에 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일 년간 한국말을 공부한 후, 부산 ‘루르드의 성모 공동체’로 파견되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일주일에 사흘은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헬렌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헬렌의 집은 이용자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날에는 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수확하기, 댄스와 체육 수업, 노래방, 헬렌의 카페, 물놀이, 외출 등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가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헬렌의 집에서는 이용자들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나”를 깨닫도록 잘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 이전에는 “사랑해? 안 사랑해?”라고 자주 물어보던 이용자가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게 되었고 직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게 될 때 참 행복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코린 16,14)

제가 일본인이다 보니, 역사적인 한일 관계의 영향들을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작년 말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첫 병실에서는 제가 일본 수녀임을 알면서도 함께 격리되어 있다는 유대감에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실로 옮겼을 때는 옆 침대에 있던 남 초등학생이 저에게 "일본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인 나쁜 사람이야. 일본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자꾸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 어머님도 다른 환자들도 침묵하고 계셨고 그 아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 미안해서 제가 한국에 왔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저에게 보여 주셨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최수란 레지나.FMM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타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 유기서원자 최수란 레지나 수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지난 2월에 관구 공동체가 있는 자카르타에 왔고, 그곳에서 2개월을 지낸 뒤, 지금은 수마트라 섬 동부에 있는 잠비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고, 수 백 개의 다른 민족과 언어들이 있어서 문화와 종교가 다양합니다.



한민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에서만 생활하다가 이곳에 오니 '타문화의 다양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과거 상업을 위해 이주해 온 중국인부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자바인, 그리고 아프리카계 영향을 받은 부족들도 있으니까요. 종교는 88%가 이슬람교여서 어디를 가든 희잡을 두른 여성들을 볼 수 있고,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날 인도네시아 관구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봉사를 갔다가 여학생 4명을 만났는데요, 각각 중국인, 자바인, 바타인, 플로레스인이었고, 종교는 유교, 이슬람, 개신교, 카톨릭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정치 이념은 ‘다양성 안의 일치’입니다. 이곳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체험할 수 있어서 저의 생각과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도직은 주중에는 유치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공동체 수녀님들과 공소 방문을 갑니다. 잠비 본당에는 22개의 작은 공소들이 속해있는데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부터 굽이굽이 비포장도로를 4시간 가야 하는 곳까지 있고, 단 5개의 가정이 있는 곳부터 제법 큰 공소들도 있습니다. 공소들은 많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신자들은 한 달에 한번 신부님과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문은 공소 신자들에게 ‘특별한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까지 공소 네 군데를 방문하고 신자들과 말씀의 전례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주일학교를 함께하기도 하고, 아픈 신자들 방문과 청년들 또는 어르신들과 복음 나누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 일정이 쉽지 않지만 공소 방문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인 지역에서 가톨릭 신앙공동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를 할 때면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성가를 부르고 소중히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단순하고도 깨끗한 신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실을 내어주는 분들이 계시고, 집집마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와서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면 친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을 기약하고 떠날 때면 감사의 표현으로 직접 키운 카사바, 집 뜰에서 갖딴 파파야등을 선물로 주실 때도 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본당의 청년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로 저를 좋아하는 청년들입니다. 같이 성가를 부르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서투른 영어로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인도네시아어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소 방문과 청년들과의 만남 등 사도직 체험을 하고 돌아올 때 생각나는 복음구절이 있습니다.



##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르 6,37)

저희가 가진 것은 비록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 뿐이지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 채워짐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현존을 기다리는 주변의 많은 요구들에 힘들 때도 있지만 FMM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불림을 받았음(갈라 5,13.17.25)’을 믿고 ‘예’라고 순응하는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이끄심에 의지하며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청합니다.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FMM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기다림의 꽃



빈창숙 엘리사벳. 영적가족 4기

오늘은 어디로 갈까? 조천 연꽃공원으로 향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의 여름은 연꽃의 계절이다. 연꽃공원을 찾으면 꽃이 얼마나 피어있을지 설레곤 한다. 활짝 핀 연꽃은 우아한 모습으로, 피지 않은 봉오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늘을 향해 두손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연꽃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우아~우아~"하며 이쪽저쪽으로 연꽃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가 한쪽에 연꽃은 피어있지 않고 싱그러운 초록의 연잎들이 가득한 곳이 보였다. 초록의 연잎으로 하늘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 것만 같은 연잎들! 초록빛... 싱그럽다. 커다란 연잎들은 태양을 담고, 구름을 담고, 스치는 바람을 담고, 하늘의 빛물을 담고, 손잡고 나온 연인들의 사랑을 담고, 한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의 인생을 담고, 누군가의 넋두리를 담고도 더 담을 것이 있는 초록의 바다 같다. 그동안은 꽃만을 보느라

보이지 않던 연잎의 새순도 눈에 들어왔다. 양쪽 잎을 멍석말이처럼 돌돌 말고 있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새순의 잎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주먹을 꽉 쥐고 무엇이든 놓치지 않으려 움켜쥐고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보였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짧은 시절! 겸손하지 않았음을, 우월감을 갖고 살았음을, 남보다 내가 먼저였음을, 무례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림 : 빈창숙 엘리사벳

새 순은 잠시 나를 되돌아보게 했다. 들숨과 날숨으로 숨을 고르고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니, 나이 들어감의 여유가, 시간이, 자유가, 자연의 풍요로움이, 오롯이 내 두 손안에 담겨 있음이 느껴졌다. 살아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즘의 나는 "살아갈 날이 짧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연꽃은 지금 나에게 살아갈 날들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바로 눈앞의 홍련이 노래하는 듯 오므리고 있던 꽃잎을 열었다. 어제 온종일 피었던 연꽃은 해가 지면 다시 처음의 봉오리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밤을 새운다. 아침이 되면 연꽃은 하루를 시작하며 한 잎 두 잎 가슴을 열면, 친구 꿀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날아와 모여든다. 하룻밤 혜어져 있었는데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같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제야 나는 알았다. 연꽃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제각기 자신의 때를 기다려 피어나는 기다림의 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난 후 기다리던 비가 아침부터 내렸다. 빗방울 맷힌 연꽃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머리 위엔 우산꽃이 피었고,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심장 소리로 들렸다. 송골송골 맷힌 빗방울 속의 연꽃을 보니 각자 자신의 꽃을 피워내, 어느 날은 해를 마주하고, 또 어느 날은 비를 맞으며 또 다른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개구리도 연잎 우산 밑으로 잠시 비를 피하고, 잠깐 비가 멈춘 사이에 실잠자리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연잎은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빗물을 담고는 흘려보낸다. 연잎의 비움과 채움에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 초대합니다 < 디딤돌 1기 >

무더위와 장마에 지치고 무거워진 마음이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게 하는 시절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늘 비슷한듯하지만 오늘은 분명 새로운 하루입니다. 가까운 분과의 사별을 겪은 우리도 이전과 다른 모습의 일상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함께 모여 떠나가신 분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를 추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디딤돌 1기 그룹 모임에 초대합니다.

첫 모임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요일 오후 2-5시)

(향후 8주간 진행됩니다.)

장 소 : 부산 양정동 성모여고 내 수녀원(부산진구 양지로 29-1)

연락처 : 010-2236-1057(최남주 베로니까) 서울

010-8352-0939(정명숙 헬레나) 부산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	(주)모톨초경	가정동빈첸시오	갈산동성당	강경아	강미현	강숙자(조정권)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강향주	검단동성당	검암빈첸시오	고대완	고승현	고승희	고월순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곽은진 구웅희	권순영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연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률	김상태	김샛별	김선옥
김애자	김영덕	김영순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준	김영춘	김영희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회	김잔디
김정민	김정숙	김정연홍수봉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김정택어울화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철
김주옥	김주희(신경란)	김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숙	김진식	김진욱
김현희	김혜겸	김호성(박정식)	김화자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보라	노근
노정애	당효준	마전성당	마지아(김재석)	명영희	문성식	문성재	문준식	문혜정
바이올가제주	박금난	박기선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준	박성현	박소진	박수인
박원서	박윤실	박은선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미	박정선
박찬순	박찬주	박태분	박해필	박현애	박현희	박화자	박회수	박효정
방진	배수정	배윤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법무법인유한
사랑나무치과	사회복지모금	서덕순(서득순)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혜석	석상령	성영주
손윤희	손은영	손은주	손정례	손희정	송명순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신승일	신용숙	신유라	신재진	신정동예로니모회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여기정	연수성당	연희동	영적가족8기	오숙자
우영희	운남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당동성당	원세경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은분	유은정	유주영(이성혜)	유춘성	유희숙	육동배	윤군자(김호송)	윤규현	윤명희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양정희)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광희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덕호	이동세	이동은	이동준	이동현
이민희	이병철	이상문	이성구	이성남	이성엽	이성호(조봉례)	이숙	이연실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주	이인숙	이영기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이제희
이지인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준	이현준(이창석)	이혜숙	이홍식
인혜정	인후작은형제	임승욱	임윤섭	임정태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	전순자	전영관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화	정민정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희파키스탄	조건희(최휘선)	조국제	조금자
조상위	조석금	조성자	조정희	조종혁	조혜영	조혜인	조화숙	조희공
지정희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차영자	천정원	청라빈첸시오	최규범	최금영
최영(중앙고속)	최영남	최영숙	최영애	최영주	최영호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지은	최향미	최효순	추기연	추상식(장형숙)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평화장터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순자	허정자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승희	홍워자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